

# “짧게 머물다가 돈 덜 쓰고 간다” 제주도 관광 트렌드

지난해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설정한 주요 지표들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작년보다 관광시장 상황이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관광공사의 '2019년 제주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들의 제주 체류일수와 1인 평균 지출 비용은 모두 떨어졌다.

내국인 관광객의 체류일수는 2016년 4.12일에서 2017년 4.49일, 2018년 3.95일, 2019년 3.55일로 4년째 감소를 이어갔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2016년 4.13일을 시작으로 2017년 4.39일, 2018년 4.9일, 2019년 4.53일로 내국인에 비해 비교적 오래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작년의 경우 전년 대비 0.37일 하락했다.

1인 평균 지출 비용은 내·외국인 관광객 할 것 없이 4년째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2016년 59만2461원에서 2017년(54만307원), 2018년(51만5825원)까지 50만원대를 유지하다 2019(46만9039원)으로 4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제주에서 돈을 덜 쓰고 가

## 2019년 제주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체류일수 3.55일·지출비용 46만여원 하락세

### 외국인관광객 비중은 전년(86.8%) 보다 줄어

### 관광 만족률은 상승...“언택트 관광 집중해야”

는 추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외국인인 제주에서 평균 1186.7달러를 사용했다. 2018년에는 1339.4달러를 쓰고 갔다.

제주도는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체류일수, 1인 평균 지출 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형태, 마케팅 다변화지수 등 5개 지표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케팅 다변화지수를 제외한 4개 지표는 계량적 접근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체류일수와 1인 평균 지출 비용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관광 만족도 조사에선 꾸준히 성적이 올라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만족률은 93.8%로 전

년(91.4%)보다 올랐다.

2016년은 77.4%, 2017년은 81.4%로 집계됐다. 외국인도 2016년부터 작년까지 81.8%, 86.1%, 83.4%, 90.5% 등으로 꾸준히 만족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형태를 보여주는 개별관광객 비중에서는 내국인의 경우 개별 여행이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내국인의 개별관광객 비중은 96.3%에 달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92.8%, 92.5%, 95.2% 순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개별 여행 비중은 지난해 82.6%로 전년(86.8%)보다 줄었다.

2016년(40.8%)과 2017년(75.5%)과 비교하면 최근 개별 여행 선호도는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선영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장은 “체류일수와 평균 지출 비용은 비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제주 여행의 추세가 한번 와서 오래 머물기보다 짧게 자주 방문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제주의 자연 경관 등을 감상하는 등의 언택트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발 맞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이마트, 가을 햇 세척인삼 판매

15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가을 햇 세척인삼' 할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2년 연속 축제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농가를 돕기 위해 인삼 할인 행사로 판매 촉진에 나선다. (사진=이마트 제공)

## 이륜차보험 ‘본인부담금’ 도입

### “100만원 설정 시 21% 인하될 것으로 예상”

이륜차 보험상품에 본인부담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배달종사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편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종사자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대행시장 등 유상운송 배달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이륜차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 이륜차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평균 118만원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는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8만원까지 인상됐다.

이처럼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이륜차 가입률이 저조하자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륜차 보험 '대인 I·대물' 담보에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 0원·30만원·50만원·75만원·100만원 등을 선택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 I (6.5~20.7%), 대물 (9.6~26.3%) 수준이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다.

만약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할

경우, 보험료는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최대 39만원(21%)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편법가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약관상 유상운송용 이륜차를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만 사고 발생 후 유상운송용으로 계약을 변경한 사례가 650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유상운송용으로 고지한 선량한 배달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일어났다.

앞으로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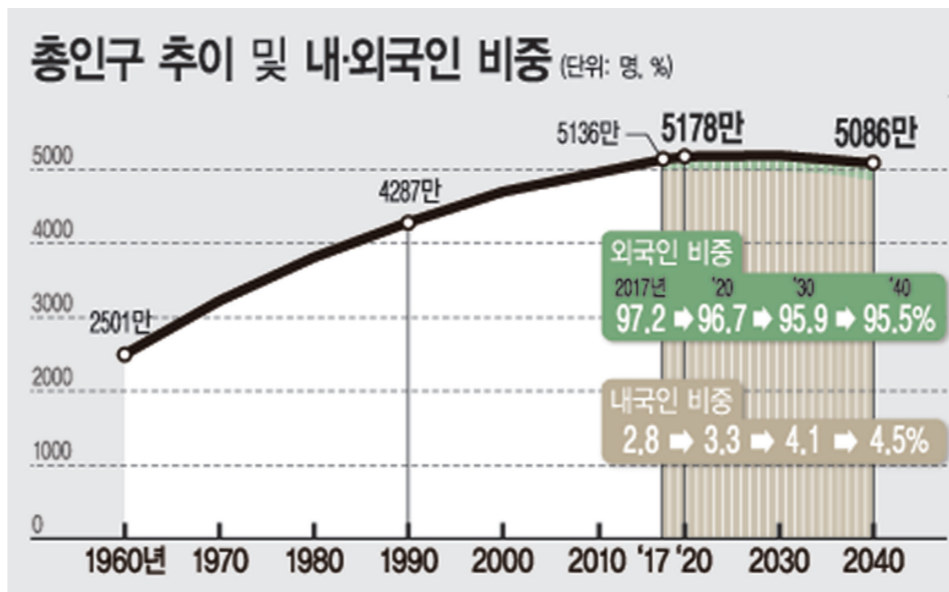
유상운송용 이륜차 가입시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약 2% 수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로 이륜차 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가입률을 제고시켜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희희기자

## 20년 뒤 노동인구 880만명 줄어...노인부양 부담은 3배 ↑

### 향후 20년간 유소년인구 134만명, 학령인구 263만명씩 줄어



현재 추세대로라면 20년 뒤인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880만명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부터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65세 이상)로 본격 진입하면서 2040년 노인부양비는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5만명에서 10년 뒤인 2030년 4980만명, 20년 뒤인 2040년에는 4858만명으로 감소한다.

올해 4956만명이었던 국내 출생자가 2040년 4734만명 수준으로 222만명 감소하는 가운데 이 기간 귀화자가 33만명, 이민자 2세가 42만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됐다.

출생자가 줄면서 유소년인구(0~14세)는 올해 623만명에서 2040년 489만명으로 134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6~21세)는 같은 기간 772만명에서 508만명으로 263만명 줄어들게 된다.

향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가파르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매년 36만명씩, 2030년대에 가선 52만명씩 감소하게 된다.

올해 전체 인구의 71.5%(3579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에는 절반인 55.6%(2703만명)까지 쪼그라든다.

20년 사이 876만명이 감소하는 셈이다. 올해 전체 인구의 16.1%에 불과한 고령인

구는 2030년에 25.5%, 2040년에는 34.3%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올해 1.5%에서 2040년이 되면 4.6%가 된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 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를 나타내는 총부양비는 올해 39.8명에서 2030년 54.5명, 2040년 79.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같은 기간 유소년부양비는 15~18명으로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겠지만 노년부양비가 크게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올해 22.4명에서 2040년 61.6명으로 2.75배 늘어 나게 된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나타내는 노령화지수는 올해 129.0명에서 2030년 259.6명, 2040년 340.9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귀화자, 이민자 2세, 외국인 등을 합친 '이주 배경 인구'는 올해 전체 인구의 4.3%(222만명)에서 2040년 6.9%(352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 이주 배경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32만명에서 43만명으로, 생산연령인구는 180만명에서 238만명으로, 고령인구는 10만명에서 70만명으로 전 계층에 걸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계층별 비중을 보면, 올해 전체 생산연령인구의 4.8%인 이주 배경 인구 비율은 2040년 8.3%까지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노동인구 10% 가까이가 이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신봉우기자

## 기재차관 “배춧값 급등, 가을배추 출하되면 안정세 뚜렷할 것”

### “배추 가격 인하...농산물 가격 동향 면밀히 살필 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 상승과 관련해 "가을배추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가격 하락 안정세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차 한국판뉴딜 점검 TF'에서 배추 등 채소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9월 농산물 가격은 역대 최장 기간 장마와 태풍 등으로 배추, 무, 토마토 등 채소류 중심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시장 상황을

평가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9월 농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19.0% 상승했다. 채소류는 34.7%나 올랐다. 품목별로는 배추 67.3%, 무 89.8%, 토마토 54.7% 등 가격이 치솟았다.

김 차관은 "다행스럽게도 태풍 이후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채소류 작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배추 소매가격은 1만원 아래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배추 도매가격은 9월29일 한 포기 당 8476원하던 것이 이달 14일에는 2686원까지 떨어졌다. 소매가격도 지난 주까지만 해도

1만원을 웃돌던 것이 14일 8341원으로 하락했다.

다만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일조량, 일교차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채소류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둔 상황에서 가격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